

# 히가시다이세츠 (東大雪) 지역

시카리베츠호 (然別湖) 와 누카비라 (糠平) 호를 중심으로 니페소초산, 우페페산케산, 이시카리산 (石狩岳) 등은 산악에 둘러싸인 지구이다. 소우운쿄우 (層雲峽)로부터의 국도 273 호선 (누카비라 국도) 에서 미쿠니고개 (三国峠) 를 넘어 들어갈 수도 있지만,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JR 네무로 (根室) 본선의 오비히로 (帶広) 나 신토큐 (新得) 에서 들어가게 된다.



안개낀 호수를 돌아보다



초여름의 타우슈베츠교

## 시카리베츠 호 (然別湖)

이 지역 최고의 경승지이다. 삼림에 둘러싸인 자연성 높은 호수 경관을, 호수 주변 탐승 뿐 아니라, 카누와 유람선을 타고 호수 위에서 탐승 할 수도 있다. 또, 겨울철에는 다양한 빙상 이벤트를 한다. 공원 입구의 오우기하라 (扇ヶ原) 는 토카치 (十勝) 평야와 히다카 (日高) 연봉을 일망할 수 있는 전망 지점으로서 알려져 있다. 또, 시노노메호 (東雲湖) 의 가이드투어와 얼어붙은 호수위에 있는 크로스컨트리 스키투어나 스노슈즈에 의한 투어를 하고 있다.

또, 시카리베츠호의 서쪽, 시이시카리 베츠강에는 시카리베츠쿄우 (然別峠) 가 있어, 병풍바위, 동굴문 폭포 등의 경승이 있고, 삼림옥 코스도 설치되어 있다. 강가에는 사슴의 탕 등 다수의 온천이 용출하고 있다.



얼음 이벤트 (시카리베츠코코탄)

## 누카비라호 (糠平湖)

누카비라호는 1956년에 완성한 발전용 댐에 의한 인공 호수이다. 히가시다이세츠 (東大雪) 의 산들 뒤로한 호수의 풍경이 경승지로서 평가되고 있다. 누카비라 (糠平) 일대에서는 카누 체험이나 쥐토끼 관찰회 등의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. (구) 국철 시호로센 (士幌線) 의 콘크리트 아치교가 지금도 다수 남아 훗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,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. 호수 서쪽 호안의 선로자취는 훗카이도 자연보도로 정비되어 있다.



얼음 위의 스노우슈즈

## 칼럼

## 칼럼 시카리베츠호 (然別湖) 의 미야베이와나



미야베이와나 (연어과 물고기)

훗카이도 (北海道) 의 하천에는 이와나 (연어과) 와 닮았지만, 몸의 측면에 얼룩무늬가 다른 곤돌매기가 살고 있다. 주로 다이세츠잔 (大雪山) 이나 히다카 (日高) 산맥, 시레토고 (知床) 반도 등 산지의 계류에 살며, 시레토고반도 등에 사는 것은 바다로 내려가 성장한다. 그러나, 시카리베츠호에 살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하는 곤돌매기는 아가미의 구조 등에서 시카리베츠호 고유의 아종으로 인정받아 미야베이와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.



히가시다이세츠 (東大雪) 의 해돋이

## 히가시다이세츠 (東大雪) 의 산들

외다이세츠 (表大雪) 의 웅대한 이미지와 크게 다르며, 이시카리 (石狩) 연봉, 니페소초산, 우페페산케산 등 험난한 산악이 우뚝 솟아있고, 그 주위에는 광대한 수해 (樹海) 가 펼쳐져 깊이 있는 자연을 체감 할 수 있다.

시카리베츠호 (然別湖) 의 외륜산을 이루는 동서의 누프카우시누프리, 하쿠운산 (白雲山) 과 덴보우잔산 (展望山) 등에서는 토카치 (十勝) 평야와 히다카 (日高) 산맥의 전망이 뛰어나다. 일부에는 표고가 낮으면서, 영구동토가 존재하여 많은 고산식물이 자라고, 쥐토끼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.


 에조쯔쓰지 (*Therorhodion camtschaticum* 진달래과 식물)

 미네즈모우 (*Loiseleuria procumbens* 진달래과 식물)


구 미즈마타역사 (三俣駅舎)

지금, 아무도 없는 주거지에서 피어난 르피나스는 지난 날의 자취이다. 그리고, 양호한 삼림환경과 주변 산악경관은 자연학습의 좋은 필드가 되고 있다.

환상의 새로서 알려져 일본 내에서는 다이세츠잔 (大雪山) 주변에서, 단 9 번의 관찰 기록만이 남아있는 세가락딱다구리가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1942년,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것은 1956년 단 한번으로 바로 이 곳이었다.



주거유적지에 핀 루피너스